

2020-2021 문화관광축제

문화관광축제

강원	강릉커피축제	10.01~10.04 (예정)
	원주다이내믹댄싱카니발	09.08-09.13
	정선아리랑제	10월초(4일간)
	춘천마임축제	05.24-05.31
	평창송어축제	01.17-02.02
	평창효석문화제	9월초-9월말 (10일간)
경기	수원화성문화제	10.09-10.11
	시흥갯골축제	09.18-09.20
	안성맞춤남사당바우덕이축제	09.23-09.27
	여주오곡나루축제	10.15-10.18
충북	연천구석기축제	05.02-05.05
	음성품바축제	05.27-05.31
충남	서산해미읍성역사체험축제	10.09-10.11
	한산모시문화제	06.12-06.14
전북	순창장류축제	10.16-10.18
	임실N치즈축제	10.08-10.11
전남	진안홍삼축제	10월중(4일간)
	담양대나무축제	04.30-05.05
	보성다향대축제	05.01-05.05
경북	영암왕인문화축제	04.02-04.05
	정남진장흥물축제	08.01-08.09
	봉화은어축제	07.25-08.02
경남	청송사과축제	10.28-11.01
	포항국제불빛축제	05.29-05.31
제주	밀양아리랑대축제	05.14-05.17
	산청한방약초축제	09.25-10.11
부산	통영한산대첩축제	08.11-08.15
	제주들불축제	03.12-03.15
대구	광안리여방축제	04.24-04.26
	대구약령시한방문화축제	05.01-05.05
광주	대구차맥페스티벌	07.01-07.05
	추억의총장축제	10.14-10.18
인천	인천펜타포트음악축제	08.07-08.09
울산	울산옹기축제	05.01-05.05

명예 문화관광축제

강원	화천산천어축제	02.17-02.22
충남	보령머드축제	07.17-07.26
전북	김제지평선축제	10.07-10.11
	무주반딧불축제	09.05-9.13
경북	안동국제탈춤축제	09.25-10.4
	문경전통찻사발축제	05.01-05.10 (코로나로 인해 잠정연기)
경남	진주남강유등축제	10.01-10.11

코로나19, 사회적 경제기업 지원대책

주체	내용	대상
관계부처 합동	○ 소상공인 중소기업 피해회복 기반마련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3중 세트 -소상공인-중소기업 특별금융지원 -피해기업 등에 대한 세정상 혜택 및 세부담 자체 완화 등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고용노동부	① 일자리창출, 전문인력, 사회보험료 사업 월 지원금 선 지급 허용 ② 코로나 19로 인한 경영악화로 고용유지조치(휴업, 고용유지지원금 수령 등), 일시적 임금체불이 발생할 경우 행정처분 면제 ③ 지역 자율 일자리창출사업 지원을 통해 경영이 어려운 기업에 추가지원 ④ 코로나19로 휴업할 경우 지원금 지원 가능	사회적 기업
기획재정부	○ 협동조합 서면총회 한시적 허용	협동조합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소상공인 경영안전자금(200억) 공급	피해 소상공인
서민금융진흥원	○ 미소금융 창업운영자금(4,400억) ○ 미소금융 전통시장 상인대출(550억) 공급 등	조건충족 자영업자, 영세상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긴급경영안정자금(4천억) 지원 등	피해 중소기업
기업은행, 기술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 특례보증 프로그램(1천억) 공급 등	피해 소상공인
신용보증기금	○ 우대보증 프로그램(3천억) 공급 등	피해 소상공인
국세청징세과 관할 세무서 행안부지방세	○ 피해자 대상 국세, 지방세 납부 연장 등	피해 납세자
관세청	○ 납기연장분할납부, 당일 관세환급, 조사 유예 등	중국 내 피해업체
금융위원회 중소기업과	○ 무이자 할부 등 마케팅 지원 및 사원자금 대출 금리 인하 등	피해우려 중소기업
근로복지공단	○ 업무상 감염 시 산재보상해택	업무상 감염발생자
국민연금공단	○ 코로나19로 입원 격리 근로자 대상 유급휴가 제공 사업주 지원	피해 사업주

(사)전북MICE발전협의회 사무국

www.jbm-mice.com

전북 전주시 완산구 산월2길 37(중화산동2가)

T. 063-715-0880 Fax. 063-252-0701

E jbm7150880@naver.com



JBMN

(사)전북MICE발전협의회 뉴스레터
JEONBUK MICE DEVELOPMENT ASSOCIATION NEWSLETTER

발행인 김기정 | 편집인 하순형, 박유정

2020. 03. Vol. 5

JBM NEWS

(사)전북 MICE산업 소식

방한 도시관광의 선도모델 육성 첫걸음 전주시, 관광거점도시 5개 대상지에 선정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광거점도시 육성 사업' 대상지로 국제관광도시 1곳과 지역관광거점도시 4곳, 총 5곳을 선정해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한다.

방한 관광시장의 육성을 위해 서울에 집중되는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지역관광거점 육성에 초점을 맞추어 세계적 수준의 지역 관광도시를 5년간 새롭게 육성한다.

2020년도 관광거점도시 육성 예산은 총 159억원으로 국제관광도시에는 43억원(기본계획 및 브랜드 전략수립: 3억원, 도시관광 수용태세 및 환경정비: 40억원)과 지역관광거점도시 4곳에는 각각 21.5억원 씩(기본계획 및 브랜드 전략수립 1.5억원, 도시관광 수용태세 및 환경정비 20억원) 총 86억원이 투자된다.

나머지 30억원은 관광거점도시 홍보 및 컨설팅비로 한국관광공사와 민간보조에 30억원이 투자된다. 선정된 곳은 국제관광도시로 부산 광역시가 선정되었고, 지역관광거점도시로는 강원 강릉시, 전북 전주시, 전남 목포시, 경북 안동시가 선정되었다.

전북 전주시는 한옥마을 등 외국인 관광객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전통문화 브랜드가 가장 확고한 도시로서, 내국인 관광이 활성화된 한옥마을을 관광을 도시 전체로 확산시킬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으며, 전라북도 내 지자체 간 업무협약을 통한 협력 관광상품 계획 등 지역관광거점으로서의 역할을 높이 평가받아 선정되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 신종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따른 서비스 업계 피해에 대한 대응책 마련 촉구 잇따라

지난 2월 3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마이스 산업·여행 관광산업·이벤트 산업·관광 서비스산업이 도산 위기에 처했습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내용은 매년마다 불어닥치는 각종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해 국내·외여행 및 행사 예약이 취소되고 있어 업계가 파산위기에 놓여 있다는 내용이다. 작년 하반기 돼지열병에 이어 올해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업계가 파산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실제로 전북 무주의 태권도원은 2월에만 행사취소가 9건으로 9,150명의 입장객 손실을 입었다.

3월 23일 기준 코로나로 인한 한국 입국제한국가수는 총 175개국이며, 이로 인해 여행업계와 관광업계가 큰 타격을 입고 있다. 이에 정부는 여행·관광·숙박·공연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였고, 고용유지지원금을 6개월 간 휴업수당의 90%까지 지원하기로 하였다. 또한, 특별용자로 실제 1% 대의 우대대출금리를 적용하는 등 여러 보완책을 내놓고 있다.하지만 이런 고용유지지원금과 융자지원 정책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의견이 많다.

지난 3월 2일 한국경제신문에 따르면 전국 15개 주요 대형 전시컨벤션센터는 지난달에만 410건의 행사가 취소되었다. 그 중 전시회는 72건, 컨벤션 및 이벤트는 338건으로 하반기까지 일정이 차던 코엑스의 90%에 해당하는 전시회가 취소됐다. 또한 일정을 미룬 행사들도 280건(전시 67건, 컨벤션 213건)으로 코로나 확산 여부에 따라 취소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듯 업계 상황이 심각한 상황에 내몰리자 13일 기준 관광업계 특별용자에는 8백여 개 업체가 신청했고 융자금 상환유예에는 3백여 개 업체가 물렸다.

하중구 한국마이스협회 사무총장은 "2~4월 설 달 동안 기업회의, 컨벤션 행사가 줄면서 업계가 최소 3,000억원 이상의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전시업계 피해액 2,160억원을 포함하면 전체 마이스업계 피해는 5,000억원이 넘는다. 정부는 추경을 통해 특별용자 확대와 융자 상환유예, '피해상담 통합창구'를 만드는 등 해법 마련에 분주하다.

문체부는 현장 중심의 탄력적 대응을 다짐하며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사)전북MICE발전협의회 소식

유진섭 정읍시장과 정읍 드론페스티벌 콘텐츠 지속가능성 확인



지난 1월 15일 (사)전북마이스발전협의회와 유진섭 정읍시장과의 만남이 있었다.

이 날 (사)전북마이스발전협의회의 김기정 회장, 장영훈 부회장, 하순형 사무국장은 유진섭 정읍시장과의 면담을 통해서 2019년 5월에 있었던 정읍 드론 페스티벌의 성황과 콘텐츠 지속가능 여부에 대해 확인하고 협의회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2020 부안 세계 쌀 문화 박람회’ 기본계획 수립 연구 용역 및 착수보고회

부안 세계 쌀 문화 박람회 개최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사)전북마이스발전협의회가 맡게 되었다.

2019년 10월 (사)전북마이스발전협의회 신창열 이사장의 제안서 발표를 시작으로 협상과 계약을 마치고 지난 12월 24일 협의회 김기정 회장과 장영훈 부회장, 신창열 박사, 박찬준 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부안군청에서 착수보고회를 가졌다.

이번 부안 세계 쌀 문화 박람회 개최를 통해 부안군은 쌀 문화 정체성의 1번지 부안군의 위상 확립과 쌀 산업 발전 및 지역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전환점으로 삼을 계획이다.



(사)전북MICE발전협의회 월례회



(사)전북MICE발전협의회 신년회
일시 : 2020. 1. 10. 19:00
장소 : 전주 신시가지 보쌈다운
주요내용 : 회장 신년사 및 임원 위촉식

(사)전북MICE발전협의회 장영훈 부회장, JTV시사저널 ‘1,300억 관광거점도시 선정, 그 과제는?’ 출연, 참여자들과 열띤 토론



지난 2월 15일(토)에 JTV 시사저널에서 ‘1,300억 관광거점 도시 선정, 과제는?’이라는 주제로 토론 프로그램이 방송되었다.

이번 토론에는 김승수 전주시장, 장영훈 (사)전북MICE발전협의회 부회장, 장병권 호원대학교 항공관광학과 교수, 김인숙 생태교통시민행동 공동대표가 출연하여 관광거점도시로 선정된 전주의 과제로 한옥 마을 트램 도입과 외연 확장, 구도심 확장화 등을 논의하였고 김승수 전주시장은 관광거점화를 통한 150만 외국인 관광객 수 현실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사)전북MICE발전협의회 임원 류인평 전주대 교수, 관광경영학회 회장에 선출

전주대학교의 류인평 관광경영학과 교수가 지난 22일 제46회 (사)관광경영학회 정기 이사회에서 제13대 관광경영학회장으로 선출됐다. 임기는 2020년 3월 1일부터 2022년 2월 28일까지로 2년이다. 이번에 선출된 류인평 관광경영학회장은 현재 전주대 관광경영학과 교수, 전주대 국제교류원장, (사)전북MICE발전협의회 이사로 활동하고 있고, 대통령 직속 지역균형발전위원회 자문위원과 전라북도유지 경기연맹 회장을 역임했다.



1997년 창립된 관광경영학회는 한국의 관광, 호텔, 외식에 관련된 다양한 연구를 해오며 연구재단 등재지 학회로서 정기적으로 국제학술대회와 국내 학술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 또한 주기적으로 기관지인 <관광경영연구>도 발간하고 있다.

류인평 관광경영학회장은 “관광경영학회는 한국의 관광을 이끄는 선도학회로서, 현재에 충실하며 미래를 준비하고자 한국의 관광인증제를 우리 학회에서 시행하겠다.”면서 “학술 활동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 광범위한 활동을 통해 학회의 이미지와 가치를 높이고, 타 연관학회의 적극적인 소통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포부를 밝혔다.

전북 MICE 산업동향

2020년부터 축제등급제 없애고 예산 균등 지원

과도한 경쟁 및 축제 자체의 ‘질’보다 등급심사에 열중하는 부작용 방지

지난해 12월 27일 문화체육관광부는 2020-2021년 문화관광축제 35개를 선정했다. 지난해 문화관광축제에 선정된 29개 축제에 정선아리랑제(강원), 진안홍삼축제(전북) 등 6개 축제가 추가됐다.

지정된 35개 축제는 앞으로 2년간 6천만원 이내에서 국비 지원을 받으며 문화관광축제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한국관광공사를 통해 축제 기획과 홍보·마케팅 등도 지원받는다. 기존 등급에 따른 차등예산 분배로 취지와 무관하게 과도한 경쟁을 유발하고 축제 자체의 질적 성장보다 등급심사에 열중하는 부작용을 방지하려는 의도이다.

양적성장보다는 실질적으로 지속 가능한 축제, 지역에 도움이 되는 축제가 되도록 지원정책 방향 전환

문체부는 최근 축제 관련 법, 제도, 정책 환경 변화 등을 계기로 문화관광축제 지원정책 전환 및 요구사항을 반영해 문화관광축제의 성장 단계별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간접지원을 강화, 유관 산업 기초조사도 추진하여 축제의 산업적 성장 기반을 마련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제는 축제의 양적 성장뿐만 아니라 회의 행사 유치 인센티브 지원 사업을 확대해 지역사회, 축제 유관 산업 발전 및 축제 생태계 형성 등 지원제도와 정책을 통해 ‘지속가능한 축제’, ‘지역에 도움이 되는 축제’로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지원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분	예비 문화관광축제	문화관광축제	명예 문화관광축제
지원 방식	축제지원 조지를 통한 지원	운영주체에게 직접 지원	축제지원 조지를 통한 지원
주기	2년 주기	등급 없이 2년 주기	지원졸임대상 축제 중 2-3개
지원 범위	홍보, 컨설팅	축제기획, 홍보·마케팅 등	심층 컨설팅, 관광상품 개발 등

전주시, 관광거점도시 사업 추진계획 밝혀

올해부터 2024년까지 5년 동안 체류형 문화관광거점도시로 육성해 외국인 관광객 150만 명 유치 계획

문체부 선정 관광거점도시로 선정됨에 따라 전라북도도가 사업 추진계획을 밝혔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1월 28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기본계획에 대한 컨설팅을 통해 도시브랜드 수립, 선도사업 추진, 지역중심 거버넌스를 진행하기로 했다.

한옥마을 리브랜딩 2.0, 전주관광의 외연확장 등 과제실현

전주시는 한옥마을 리브랜딩 2.0을 통해 한옥마을의 문화관광 환경 개선과 한옥정원 조성 등 숙박환경 고급화로 국제수준의 관광인프라를 구축하고 국내우일의 관광트램 도입과 한옥마을 100가지 체험, 사계절 글로벌 축제와 공연 등 콘텐츠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전주관광의 외연확장을 위해 북부권 전통정원과 생태체험, 남부권 예술마을 연계 아트투어 구축 등 공간적 확장을 하고 전통과 미래기술 융합형 관광산업 육성, 유네스코 음식창의도시 특화상품 개발 등 산업분야 확장과 공항과 KTX를 연계한 셔틀버스 운영, 전주형 스마트여행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지속가능한 관광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글로벌 통합안 내체계 표준화를 비롯한 여행객 중심 관광환경 조성과 전주시민 프리가이드 양성 등 도시관광 역량강화를 실시하고 관광거점도시 전담실용직 설립하며, 관광DMO육성 등 관광 R&D 기능을 강화한다. 또, 전북투어패스의 글로벌 수준을 강화하고 근대문화유산 관광자원 개발을 통한 연계사업을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융합 협력형 관광역량을 창출하는 계획을 추진할 예정이다.

구도심 100만 평 활용, 외국인 관광객 150만 명 유치와 관광 일자리 4만개 창출계획

전주시는 한옥마을 중심의 관광효과를 전주 전역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구도심 100만 평에 아시아 문화심장터 프로젝트와 팔복예술공장 재생, 전주역사 전면개선을 추진하고 2024년까지 외국인 관광객 150만 명을 유치하고 4만 명의 관광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전시·회의 지원 확대, 마이스 산업 키운다

전주시, 국내 전시·회의 인센티브 지원범위 기존 숙박인원 200명 이상에서 100명 이상으로 축소, 국제회의 지원액 최대 2,500만원으로 확대

문화와 관광으로 세계와의 승부에 나선 국가 관광거점도시인 전주시가 크고 작은 전시·회의 행사 등의 지원을 확대해서 전주형 마이스(MICE) 산업을 키우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시는 국제 전시·회의의 지원금을 등록인원과 숙박인원, 행사 기간 등을 고려해 최대 2500만원까지 지원하고 소규모 회의를 개최하더라도 인센티브를 지원키로 했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시·회의 행사 유치 인센티브 지원사업을 확대해 전주형 마이스 산업 육성 성과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직결되도록 힘쓸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우선 시는 전주에서의 회의 기간과 참석자 수, 숙박여부, 참가자들의 지역관광 여부, 지역 업체 소비규모 등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지를 판단해 지원범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종전의 경우 숙박 여부에 따라 1인당 지원금액과 회의실 대관료, 홍보물품 사용비 등을 일부 보조해줬던 정형화된 지원방식과는 차이가 있다는 게 관계자의 설명이다.

지원액 증대, 지원범위 확대 등 마이스 산업을 키워나갈 방침

대표적으로 2개국 이상 외국인 20명 이상이 참여하고, 전체 숙박인원이 100명 이상인 국제 전시·회의에 대해서는 최대 2,500만원까지 지원하게 된다. 전년도까지는 지원 가능했던 최대 700만원보다 3배를 웃돈다. 또 종전에는 참가 숙박인원이 200명 이상일 때만 인센티브를 지원했지만 올해부터는 국내 전시·회의에 대한 지원범위를 100명 이상으로 확대했다. 나아가 시는 전체 숙박인원이 50명 이상이거나 외국인 숙박인원이 20명 이상인 소규모 회의에 대해서도 최대 300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함으로써 더 많은 방문객이 전주를 찾을 수 있도록 만든다는 구상이다.

최라기 전주시 문화관광체육국장은 “앞으로도 전주시 마이스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마이스 인프라와 제도에 대해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갈 것”이라며 “마이스 행사 유치를 통해 도시 브랜드 가치 상승은 물론, 지역관광과 관련 산업 등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